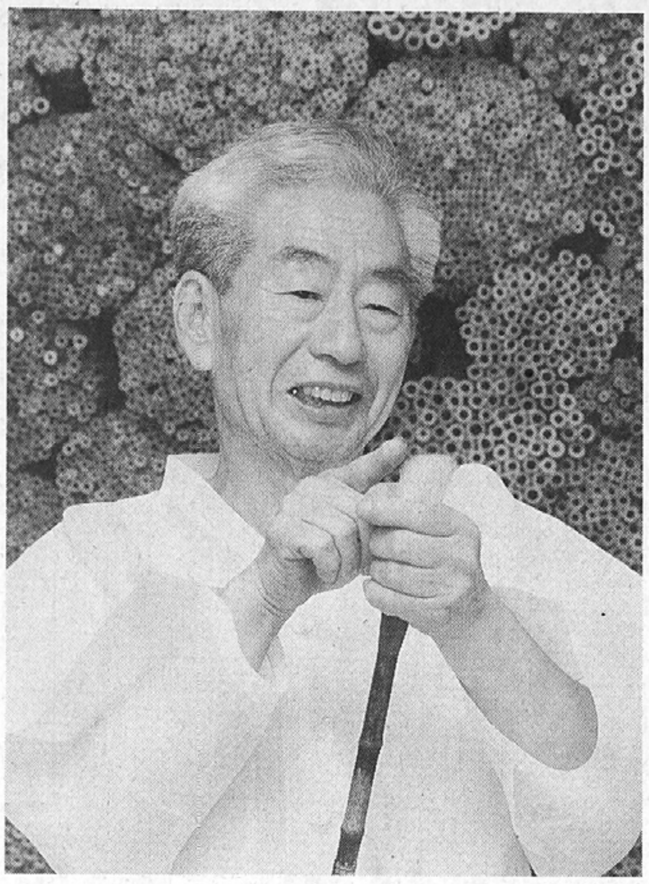
"붓 맬때는 오직 붓만 생각해요"

산문밖의 禪

무형문화재 毛筆匠 권영진 씨



"내 놓을게 하나도 없어. 나이가 많다는 것이 자랑축에 든다면 모를까."

장인은 모름지기 '하나에 산다'고 하였던가. 붓 만들기에만 53년을 바친채 살아온 필장(筆匠) 권영진씨(67세).

인사동, 사방이 빽빽이 대나무와 짐승의 털로 들어찬 그의 집 한켠 작업실에는 붓 만들기 50여년 동안의 고독한 침묵이 가득베어 있었다. 권씨에게 있어 침묵의 세월 그것은 곧 수행의 날들이었다.

침묵 이기면 작품탄생

"방안에 꼭 틀어박혀 미세한 짐승의 털과 밤낮으로 씨름하는 것이 붓 만드는 일이라, 세속의 잡다한 생각에 젖어 있으면 견뎌 내지 못해. 붓 앞에 앉으면 붓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붓장이의 삶이지. 붓을 만들때는 그일 앞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마저 잊어 버려야 하거든."

일단 작업실에 들면 그는 방하착의 경지에 든 선승과도 같아진다. 묵묵히 엎드려 털을 고르고, 시린 눈을 부비며 붓끝을 잡아 매다 보면 세상의 시름을 모두 잊어 버린다는 것이다.

죽파 권영진에게 있어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작업대 위에 묵묵히 엎드려 족제비 꼬리털과 조각칼, 다리미, 저울 등 붓 만드는 도구들과 씨름하는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다.

"어떤 일을 할때 그 일의 극에 다다르면 그곳이 곧 선의 묘한 이치가 있는 곳이지. 깨달음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지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

붓을 만든다는 것이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필요해서 일까? 백발이 성성한 그는 어느새 인고의 아픔을 품은 침묵의 세월을 통해 잔잔한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듯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붓장이 선사'라 부르는 모양이다.

오늘의 무형문화재 제5호 모필장(毛筆匠) 죽파 권영진이 붓 만들기에 외길 인생을 살아 갈 수 있었던 것은 부인 김의은씨의 보살같은 마음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게 그의 회고다. 열여섯 꽃다운 나이에 머리얹어 시집온 뒤, 남편의 뒷바라지에서 붓 만드는 일까지 함께 하기 40여년이니 그 마음 고생이 오죽 했으랴. 그런 그녀 또한 어느새 '장이'가 되어 있었다. 또 장남 대하씨도 뒷일을 거들어 주다 일을 배워 역천동에서 따로 붓을 만들고 있고, 작은 아들 대일씨도 필방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니 온 가족이 붓 만드는 일 가운데에 있는 셈이다. 요즘은 열살도 채 못된 손자손녀들까지도 붓 만드는 흉내를 제법 낸다며 웃는다.

붓 만들기 생활을 해 오는 동안 생활고에 허덕이던 시절도 많았다.

그러나 50여년전 강냉이와 콩깻묵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던 그 시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배웠던 그의 50년 고달팠던 인생역정을 이제는 스스로 깨달은 마음자리와 벽면에 진열돼 있는 수차례 전승 공예전에 출품했던 붓들과 상패들이 대신 그를 위로해 준다.

"현상계에 인식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 절대적 자유를 나이 예순줄에 들어서야 알았으니…. 그동안 보여지는 가난에 힘겨워 하며 보낸 세월이 지금은 아쉽다는 생각마저 들어."

나 마저 잊은채 몰두…'붓장이 선사' 별명 얻게돼
버리는 지혜 배우기 53년…두 아들 가업 대이어

버리는 마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실체 속의 밝은 마음 하나만 지키고 살아가면 평생이 최상의 수행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붓을 만드는 과정과정마다 절차가 까다롭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이제는 손가락의 느낌만으로도 붓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권영진씨는 그 동안 외길인생에 가벼운 긍지를 느낀다.

외길인생 50여년. 요즘 그는 4~5년전부터 말로만 들어 왔던 옛날의 붓들을 재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수 많은 문헌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던 대나무나 짚 붓을 한가닥에 바늘로 오십가락 정도 잘라내어 붓을 만들었고, 연꽃을 말려 연화필을 만들었다.

선조들 붓 재현에 몰두

붓대의 종류도 여러가지 인 것을 듣고 도자기, 칡뿌리, 대나무 뿌리, 볏짚, 통나무등을 사용하여 만들기도 했다. 그 작업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실패하면 다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하기를 거듭했다. 새로운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또다시 새로운 화두를 풀기위한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붓의 털을 보호하기 위해 붓뚜겅을 만들었던 일, 세필을 만들어 대중화시킨 일, 붓을 연구하고 다듬어 내는 것이 고희를 앞둔 권영진씨에게는 묵묵히 마음자리를 찾는 꾸준한 수행인 것이다.

'죽으면 털찌꺼기 밖에 남지 않는다'는 필장 권영진씨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세상물정에는 눈이 어두워…."라며 자신의 지나온 삶에 의미 부여하기를 애써 거부한다. 그런 그의 모습은 성성한 백발이 연륜을 말해 주는데도 그의 삶은 아직 한 여름의 푸른 숲과도 같다.

"만들고 싶은 붓이 있으세요"라고 자리를 털며 던진 물음에 그는 "사람들 가슴에 맺힌 세상의 때를 말끔히 씻어 주는 붓을 만들고 싶어"라며 평생의 화두를 내보였다.

도필선 기자

삽화·이기선

'부모 거역' 곧 자기 삶 부정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㊲

명색(名色)

옛날 충청도 서해안지방에 유행한 말이 있다. "명색도 모르고 까분다" "명색없이 논다" "명색이 있어야지" 처음 듣는 사람은 이말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여느 지방 사투리로 받아넘기기 쉬운 말이다. 그저 상투어나, 말머리를 잡을 때나 아니면 말끝에 붙여서 하는 말인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왜 서해안지방 사람들이 유독히 이 말을 쉴새 없이 쓰고 있을까. 장난끼 섞인 말인가 아니면 욕인가. 여기에 대하여 연구된 것도 없으니 그저 듣고 말게 된다.

그런데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 서해안 지방은 옛날 백제문화권이 지배하였던 곳이다. 태안이나 서산에 가면 바다로 향한 마애불상이 잔잔한 미소를 띠고서 늠름하게 서 있다. 그것은 불교문화가 깊숙히 자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생명 緣起' 알면 孝心 절로 생겨

불교신앙, 불교문화 이것은 상즉의 관계이다. 불교를 신앙하면 자연스럽게 예술품을 남기고 싶은 갈망이 샘솟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중한 바위에 부처님의 미소를 담아보려고 혼신의 징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근본없는 생명은 없어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신앙은 교설에서 온다. 그 교설은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은 깨침의 소리요, 삶의 지표인 것이다. 깨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심금을 울리고 착함의 궁극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백제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중국의 동진시대이고 침류왕 때이다. 침류왕은 불교를 백제에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드렸다. 마라난타스님이 해로를 통하여 한산에 옮겨 왔고 또한 왕흥사란 사찰을 세워 백제 불교의 기틀로 삼았다. 언제나와 같이 백제는 해양 중심으로 종교, 문화, 경제를 경영하였다. 이렇게 보면 앞서의 "명색"이란 단어가 불교의 용어일 것임에 틀림없다. 12연기의 하나임을 직감적으로 모두가 느껴 알 것이다.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등에 나오는 명색인 것이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명색도 모르고" "명색없이" "명색이 있어야지" 이러한 상투어를 다반사로 쓴 것은 그 이유가 있었던가. 명색은 생명의 원형질이다. '명'이 정신적 의식이라고 한다면 '색'은 사대인 지수화풍인 것이다.

무명업식에 의하여 원초적 인간이 형성될 때 행위의 과보가 있을 것이고 그 행위는 식이라는 원인을 동반하고 또한 명색이란 결과를 생출할 것이다. 생명의 원초적 형상이 명색으로 표현되었다면 이 명색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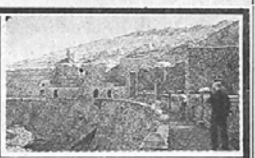
나의 명색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친인은 누구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부모님이다. 부모없이 나의 명색이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다. 부모는 나의 친인자(親因子)이다. 친인자의 근본을 무시하고 나의 인자인 명색이 생성될 수 없다. 세상에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구치는 생명은 없다. 모두가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 생성장양하는 것이다. 부모는 나의 생명의 연기요, 삶의 역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친인자를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나의 명색이 태어날 수가 없다.

인과에 의해 생성장양

여기에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서해안 백제 사람들은 불교교리에 대한 심오한 천리를 깨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삶의 원리를 체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명색의 친인자인 부모를 효순하고 경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렇게 명색을 중요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색은 부모인 것이다. 고향이고, 생명의 원형질인 것이다. 그 부모를 섬기고 고향을 사랑하고 생명의 원초를 신앙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용어가 생활에 담겨 약간 빗겨가는 언어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무한한 부처님의 진리를 존중한 흔적이 보인다.

우리들은 명색을 찾아서 명색을 사랑하면 부모와 생명을 사랑하는 인격이 될 것이다. 오늘날 명색없이 부질없는 행위를 하는 불한당에게는 명색 찾는 일이 중요한 일상이 될 것이다.



불교 성지 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발: 8월 28일
- 동참금: 295만원
- 일정: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발: 8월 25일
- 동참금: 188만원
-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발: 8월 27일
- 동참금: 210만원
- 일정: 서울-상해-성도-라사-쟝쩨-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발: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160만원
- 일정: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 등)-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195만원
-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8월 19일, 9월 16일
- 동참금: 100만원
-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8월 27일
- 동참금: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 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